중국 콩 산업의 문제점

콩은 중국의 중요한 유료작물이며 식물단백질의 주요한 공급원이다. 2009년 전국 콩의 총 구매량은 5463만 톤으로 국내에서는 1500만 톤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해 약 4000만 톤은 수입에 의존했다. 일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따라서 부단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콩 산업에서는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도리어 하락의 추세가 나타났다. 그 원인은 콩 재배농가들이 평균 1~2무의 토지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아 규모적 수익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. 토지자원이 풍부한 헤이룽장(黑龍江) 전업농가들의 경지규모도 겨우 150무 정도밖에 안 된다. 재배규모가 작고 기계화와 표준화정도가 낮고 중국의 콩 재배 원가가 미국보다 30% 높은 것이 현실이다.

국제무역측면에서 콩의 수입은 부단히 늘어나 콩 공급의 안전계수가 낮아지고 있다. 1996년 전까지 중국은 콩을 수출됐지만 1996년부터는 처음으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됐다. 2000년에 이르러서는 콩 수입 제1 대국이 되었으며 수입량은 부단히 높아가고 있다. 콩은 산업사슬에서 비교적 긴 산업으로 농업생산, 유지가공, 식품가공, 양식업, 의약, 화학섬유 등 여러 가지 업종과 관련되나 중국은 콩 관련 산업의 발전이 늦다.

가공측면에서 콩은 국제시장 가격의 파동으로 국내 가공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. 즉, 국산 가공 콩의 원가가 높고 이윤공간이 작아 가공기업들이 보통 국산 콩을 사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. 그 첫 번째 이유는 대출로 국산 콩을 수매하는데 연간 운용자금은 한 해에 두 번으로 제한되고 대출 이자는 톤당 70위안이다. 두 번째는 내자기업들이 콩을 구매할 시 운임비용, 포장비용, 공터사용비용의 지출이 국산 콩의 저장 원가는 톤당 75위안인데 반해 연해지역의 수입 콩에 대한 원가는 25위안밖에 안 된다. 세 번째는 중국의 주요 콩 생산지역은 주로 동북지역이지만 콩 가공기업들은 동남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동북의 콩을 연해지역으로 운반하는데 톤당 70위안의 운송비용이 들지만 수입 콩은 연해 가공으로 이 부분이 절감된다. 이상의 3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을 합치면 연해 가공 국산 콩은 수입 가공 콩보다 톤당 170위안이 더 비싼 셈이다. 내자기업들이 국산 가공 콩을 구입을 할 경우에도 손해가 크다. 이점이 바로 주요 생산지역에서 콩 재배농가들이 길게 늘어서서 콩 판매를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일부 가공기업들이 원료 부족으로 곤경에 빠지는 현상을 낳는 원인이다.

국제시장에서의 콩 가격은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해 정부의 통제가 어렵게 됐다. 국산 콩은 여전히 수입 콩 가격보다 비싸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수입 콩은 늘어나고 있다. 기

업들은 국산 콩을 구매하지 않고 국가에서도 저장할 수 없어 농가들이 팔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 10개월 동안 수입 콩의 판매가격은 시종 톤당 3100위안 좌우로 중국의 주요 생산지역 콩 가격보다 톤당 평균 500위안이 낮았다. 2008년 국내 새롭게 출시된 콩의 가격이 대폭 하락했을 당시 국가에서 제때 임시저축정책을 내놓아 국내 콩 가격을 안정시키고 콩 재배농가들의 수익을 안정시키고 파종면적을 안정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으나 지속적인 조치가 부족해 심각한 가격 불안정을 겪었다.

중국의 콩 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, 기업체제, 무역전략 등 복잡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다. 국내 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때 생산은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. 국제시장의 콩기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 중국 국내 콩 가격은 줄곧 내리막 상태였다.

자료: 구시(求是)(2010. 5. 1)